

Sermon Notes:

서론: 인류사와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 비유

본론:

1.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된 비유
 - 가. 율법을 잘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
 - 나.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
2. 예수님의 질문
 - 가. 율법의 답은? -> 쉼마 (신 6:4-9), 레 19:18
 - 나. 행하면 살 것 (요일 3:18)
3. 율법사의 이웃에 대한 질문.
 - 가.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싶어함
 - 나. 율법사가 알고 있는 제한된 이웃
4.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하신 예수님
 - 가. 무모한 유대인 여행객
 - 나. 피해서간 제사장과 레위인: 한 마디로 '귀찮아서'
 - 다.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 당한 사마리아인의 선행
가까이 가서 살핌, 응급조치, 끝까지 돌봄
5. 누가 나의/우리의 이웃인가?
 - 가.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의 질문
자기 테두리에서 벗어나 필요한 사람의 이웃 (원수도)
 - 나. 이해관계가 없으면 불행을 보고도 지나침
Cf: Disaster Relief Team
 - 다.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의 문제
살다가보면 만나게 하시는 강도 만난 사람들

결론: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에서 미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.

암송구절: 누가복음 10 장 37 절

‘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’

메모:

1.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?
2. 편견 없이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?